

##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결심 공판에 앞서 이준석(68) 선장이 고개를 숙인 채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며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검, 살인혐의 적용... 승무원 3명엔 무기징역 유족들 "승무원 무기징역 말도 안 된다" 강력 반발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익)는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부차위에 의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6면> 이날 공판은 검찰이 형사 피고인의 형량을 구형(求刑)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선고 직전의 재판으로,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하면 195일만에, 첫 재판이 열린 6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140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논고문을 통해 "4월 16일은 안전국지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됐고 사고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의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이 선장은 세월호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면서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완화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고, 변명과 허위 진술로 일관한 점 등을 감안,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살인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42) 1등 항해사, 김모(46) 2등 항해사, 박모(53) 기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 혐의 외 박모(여·25) 3등 항해사,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하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유족들은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 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유족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사형도 부족하다"며 "왜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을 생중계하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는 이날 유족 19명이 찾아 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 선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1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순신대교

총 길이 : 2,260m  
폭 : 25.7m (양복 4차로)  
주탑간거리 : 1,545m (이순신 탄생년도 1545년)  
높이 : 270m (H자형)  
대교하부 : 18,000 TEU급 선박통행가능  
지진규모 : 6.5 강진에 견딜 내진 1등급 설계  
최대풍속 : 81.6m/sec 강풍에도 안전 설계

□ 이순신대교 위치도

남해고속도로  
광양권부두  
여수만  
여수만  
여수만

## 이순신대교 성급한 임시개통에 '흔들' 차량통행 재개도 하룻새 '뚝뚝' 결정

전남도 "구조적 결함 없다"

성급한 임시 개통이 큰 화를 부를 뻔했다. 지난 27일 흔들림 현상으로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됐던 이순신대교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문가와 시공사, 전남도의 판단에 따라 불과 하루 사이 차량통행이 풀렸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맞춰 포장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임시개통됐던 다리 노면에 균열이 발생해 보수공사 중 교량이 흔들려 통행이 중단됐고, 하루 만에 다시 통행이 허용된 것이다.

전남도는 27일 전남 오후 이순신대교가 극심하게 흔들렸던 원인은 대교내 도로 재포장 공사 과정에서 설치한 가림막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외류(외오리)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분석됐고, 안전에 큰 이상이 없는 만큼 이날 오후 8시부터 차량통행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순신대교는 5cm 두께로 포장을 완료한 뒤 차량이 통행해야 함에도 지난 2012년 5월 10일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임시로 2.5cm만 시공한 뒤 임시개통했다.

포장 층의 피로 누적으로 강도가 낮아져 균열이 발생하자 지난 6월부터 총 2.26km 4차로 구간의 기존 포장을 걷어내고 이 달 안으로 5cm 두께의 '에폭시 아스팔트'로 재포장할 계획이었다.

이순신대교는 지난 26일 오후 5시께 '에폭시 아스팔트'의 온도를 유지할 목

적으로 이순신 대교 전체 난간에 가림막(길이 2.26km·높이 1.2m) 설치를 완료한 지 1시간 뒤 흔들림 현상이 발생했고, 전막을 제거한 오후 8시부터는 안정을 되찾았다.

점검에 참여한 전북대 권순덕(49)교수는 "유지관리사무소의 계측결과 교량이 상하변위는 ±0.58m로 분석됐는데 기준치가 ±2.6m 이내인 이순신 대교의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흔들림이 관측될 당시 이순신 대교 부근에 불었던 바람은 풍속 8m/s로 강풍은 아니었지만 바람이 가림막에 막히면서 5m 이상 크기의 외류가 발생, 교량을 따라 이동하면서 노면을 끌어당겨 진동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차량주행검사, 육안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통행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단, 포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탓에 과적·과속차량을 철저히 단속하고 조만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정웅 조선대학교 교수(토목공학)는 "초속 8m 바람에 그정도로 심하게 다리가 흔들렸다는 것은 가림막이 설치된 탓도 있었지만 설계결함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흔들리는 김치산업...배추농가 '파김치'

연간 20만t 이상 수입

식당 김치 90%가 중국산

중국산 김치가 연간 20만톤 넘게 수입되면서 국내 김치산업이 흔들리고 전남 배추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농산물품질관리원·김치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째 김치 교역량은 계속 적자를 기록했고, 5년간 누적적자만 총 6256만 달러(약 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매년 일본 등에 9000만~1억 달러의 김치를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1억~1억20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도 김치 수출액은 8928만 달러였지만 중국에서 수입액은 1억1743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산 김치 수입은 지난 2011년 관세청의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하면서 크게 는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특히 중국산 김치는 마트나 인터넷몰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일반식당·병원·학교·기업 등 대량급식소에 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김치협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95% 이상 중국산 김치를 내놓고 있다. 일반식당과 대량급식소도 90% 이상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다.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면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건수는 2012년 877톤에서 2014년 9월 현재 3299톤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중국산 김치가 널리 쓰이면서 국내 김치산업은 물론이고 배추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中風 맞은 여수산단 지역경제 흔들린다 ▶11면  
미생 열풍 윤태호 작가 인터뷰 ▶17면

정은주·김석치과 개원 일시 2014년 11월 1일(토) 12시~오후 4시

문의처 062)365-7528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시~오후 7시  
• 야간진료(화요일) | 오전 9시~오후 9시  
•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2시 30분~오후 2시  
• 주말, 공휴일 휴진

광주광역시 남구 팔산로 154 (팔산동, 가림밭동 3층, 돌고래역 1번 출구)

학교설립60주년 기념 대음악회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11월 6일 저녁 7시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광신대학교 062)605-1130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 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HERA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명매체침이나 이모러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